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의 관계: 사건충격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이보영¹, 김은영^{1*}, 장미²
¹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²POSTECH 인권센터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and Stress in College of Engineering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ors of Impact Event

Bo-Yeong Lee¹, Eun-Young Kim^{1*}, Mi Jang²
¹Division of Education Counseling, Kyungpook University
²Human rights center, POSTECH

요약 본 연구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공과대학 내 인권상황과 스트레스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 하고 있으며, 상담에서 생활 속 PTSD 징후들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한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사건충격과의 매개변수를 통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역의 4년제 공과대학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계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충격 척도와 스트레스 정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건충격(매개변수)는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 존중이 학업 및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및 학업 환경에서 인권 존중이 필요하며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및 제도적 개선의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nd stress-related difficulties in engineering schools from an annual survey and presents the signs of PTSD in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among students at a local engineering universit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rameters of an impact event and the resulting stress level according to the students' perception of human rights conditions. This study targeted 234 students from the local four-year degree awarding engineering colleges. The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PSS 27.0 program and the Process macro to verify the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bootstrap.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greater the engineering students' percep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s, the more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ident impact scale and the degree of stress it induc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impact events (and their parameters) are partly mediate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wareness and stres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can reduce the stress and impact of traumatic events in academia and research. Apart from the above,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needed in the research and academic environment, and greater atten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

Keywords : Engineering College, Human Rights Conditions Perception, Stress, Impact Even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Kim(Kyungpook Univ.)

email: hyunhuk@knu.ac.kr

Received July 23,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Revised August 24,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인권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1,2]. 도덕심리학자인 Rest(1994)[3]는 한 사람이 인권 옹호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인권 관련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 인권 옹호 행동을 밀고 나가는 실행과정이 위계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는데[4], 이는 각 개인이 인권 문제 상황을 지각 및 해석하고 행동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5].

한편, 사람이 모이는 모든 조직은 다양한 인권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위계와 권력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할수록 인권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대학이다[6].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오랜 시간의 연구실 생활, 도제식 학습, 수직적 위계질서 구조, 좁은 전공 분야에서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등 과학기술계가 지닌 학문적, 연구적 특성과 맞물려 타전공 학생들과는 다른 인권 문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7]. 일부 이공계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매해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상황 및 개인 내외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그 요인 중에는 차별, 휴식 및 여가 시간의 부족, 교육 내용과 형식 결정 자유의 침해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함을 볼 수 있었다[8].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고착된 권위주의적 체계와 비합리적 연구실 운영 방식으로 인한 폭언, 강요,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사건들이 PTSD 증상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9].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특수분야 즉, 경찰, 소방공무원,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연구들[11]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종합대학의 18~28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TSD관련 연구에서 주변 대인관계 문제 즉 다툼, 갈등, 언쟁, 이별, 실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고 심리적·공간적·경제적인 부분의 불안정한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및 적응의 어려움'이 한국 대학생의 주요 외상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10]. 이 연구에서 응답자 97.9%가 1건 이상의 외상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만큼 대학생들의 외상 경험 또한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대학 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공과대학 학생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인권상황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공과대학의 특수한 인권상황이란 5~7년의 같은 연구실 생활, 지도교수의 학생에 대한 졸업과 실적 관련 권한, 도제식 학습에 따른 선배의 지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선행연구[9]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상황지각, 사건충격, 스트레스와 같은 세 변수가 어떤 관련성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사건충격 경험의 관계에서 인권 친화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 사건충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건충격의 매개변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공과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며, 경상북도 소재의 공과대학교로 하였다. 총 대학생 235명이 참가하였으며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32명 중, 학부생 87명(37.5%)과 대학원생 145명(62.4%)이었으며, 남 158명(68.1%), 여 74명(31.9%)이었다. 학생들은 교내 사이트에 등재된 링크를 따라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고 보상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 받았다.

2.2 연구 도구

2.2.1 예측변수

인권상황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는 2020년 1월에 서울대학교에서 기획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12]의 18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

다(0점)로 응답할수록 인권보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되고 있다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상황지각과 관련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0으로 나타났다.

2.2.2 준거변수

스트레스 자각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지난 1개월 동안 피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는 14문항 설문지로 1983년 Cohen 등[13]에 의해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 후 1988년에 최종 4개의 문항과 10개의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 개정된 10개 문항의 PSS를 번역[14]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PSS의 경우 문항 1, 2, 3, 6, 9, 10은 긍정 문항으로(0=전혀 없었다, 1=거의 없었다, 2=때때로 있었다, 3=자주 있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채점이 되고, 문항 4, 5, 7, 8은 부정 문항으로 역 채점된다. 총점의 범위는 0~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진단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절단점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13]. 스트레스 자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8로 나타났다.

2.2.3 매개변수

개정판 사건충격 척도(Impact Event Scale Revised: IES-R)는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는 외상 후 주요 증상인 침투(intrusion), 회피(avoidance), 과각성(hyperarousal)을 측정하는 사건충격 척도(IES)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Weiss와 Marmar(1997)[15]가 기존 15개 문항에서 22개 문항으로 문항 수를 늘린 개정판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0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미와 은현정(1999)[16]의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후유증 증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건충격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8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사건충격 매개변수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의 특징 및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7]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의 매개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다. 이후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상황지각이 사건충격척도를 매개하여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권상황지각문항, 스트레스척도, 사건충격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4년제 공과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235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23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158명(68.1%), 여자 74명(31.9%)이며, 학년별 분포는 학부생 87명(37.5%), 대학원생 145명(62.4%)이었다. 나이대 분포는 아래와 같은 평균 나이는 24.4세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N	%
Gender	Male	158	68.1
	Female	74	31.9
Degree Courses	Undergraduate	87	37.5
	Graduate School	145	62.4
Age	10's	43	18.5
	20's	170	73.3
	30's	19	8.2
	Age Average	Mean: 24.4 SD: 3.6	

3.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는 주요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최댓값, 최솟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인권상황지각의 평균은 72점 만점에 41점

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소값 5점, 최대값 54점으로 분석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보호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낮을수록 인권보호가 미흡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척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21.58로 나타났고 최소 0점, 최대 40점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건충격 척도는 만점 88점에 평균 31.72점이고, 최소값은 0점, 최대값은 8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in	Max	M	SD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232	5	54	41.00	10.790
Stress	232	0	40	21.58	7.190
Impact Event	232	0	88	31.72	20.301

3.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상황지각과 사건충격도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상황지각 점수가 낮을수록 즉, 어려움을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척도는 높고, 인권상황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척도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인권상황지각 정도가 낮을수록 사건충격척도는 높고, 인권상황지각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건충격척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Stress	Impact Event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1		
Stress	-.421**	1	
Impact Event	-.320**	.574**	1

p<.01, *p<.001

3.4 연구모형 검증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건충격 정도가 어떠한 매개관련성이 있는지 Baron과 Kenny(1986)[1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 예측변수인 인권상황지각이 사건충격척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 = -.325$, $p < .001$), 2단계에서 인권상황지각이 준거변수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30$, $p < .001$), 3단계에서 예측변수인 인권상황지각과 매개변수인 사건충격척도가 준거변수인 스트레스에 각각 부(-)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정도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사건충격척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와 비교하여 β 값이 -.430에서 -.271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측변수인 인권상황지각변수가 준거변수인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사건충격척도가 부분매개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변수와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

Table 4. Analysis of Mediating Variable of Impact Event

Step	variable		B	SE	β	t(p)	R ²
1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Impact Event	-.611	.117	-.325	-5.238***	.106
2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Stress	-.29	.04	-.430	-7.247***	.185
3	Human Rights Situation Perception	Stress	-.183	.036	-.271	-5.016***	.398
	Impact Event		.175	.019	.488	9.040***	

***p<.001

Table 5. Bootstrap Result

variable	Effect	BootSE	95% Level of Confidence	
			BootLLCI	BootULCI
Impact Event	-.1070	.0221	-.1532	-.0665

수의 하·상한값은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1525와 -.0657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충격의 매개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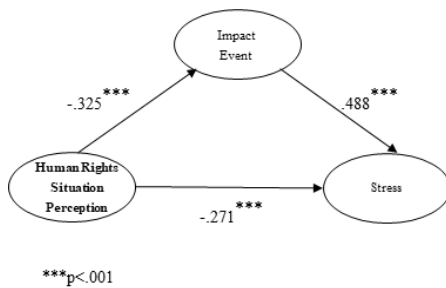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Rela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공대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이 사건 충격척도를 매개로 하여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공과대학 4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 사건충격변수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건충격변수와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사건충격과 스트레스에는 부적(-)영향을 미치며, 사건충격과 스트레스는 정적(+)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인권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도 낮추었다는 선행결과와도 관련이 있다[18].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영·유아인권 인식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9]. 보육교사나 청소년과 같이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인권상황에 대한 지각과 스트레스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건충격변수 사

이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PTSD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20].

둘째, 사건충격변수는 인권상황지각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즉, 공과대학생들의 인권상황지각 정도가 스트레스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더불어 사건충격변수가 스트레스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과대학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개인의 인권보호가 중요하며 사건충격과 관련된 재경험을 사전에 치료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Williams(1993)[21]는 직장 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외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그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며, 외국연구들은 동료지지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21]. 하지만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지나 대화가 반드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동료나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지지라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22-24]. 매개효과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또는 ‘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할 때 이용한다[25]. 매년 이루어지는 인권 실태조사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과 스트레스 정도는 자주 측정된다. 최근 상담에서 자주 호소하는 사건충격과 관련된 PTSD는 가벼운 증상부터 신체 증상,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에 대한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건충격과 관련된 요인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원인들 중에서 다양하고 특수한 측면에서 탐색해 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인권상황지각 정도와 사건충격,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변수와 척도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 중 연구중심 공과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상

황에 초점을 두고 사건충격 경험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점은 의의가 있다. 지도교수나 선행의 폭언 및 강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인들이 사건충격을 유발하거나 재경험으로 이어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실 생활이 대부분이 공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대학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건충격 경험 방지를 위해서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References

- [1] M. R. Ryu, "Promoting awareness of Rights of the Child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 10, No 1. pp.135-162, 2017
- [2] J. J. Lee,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7, 2011
- [3] Rest, J. R. (Ed.).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Psychology Press. 1994
- [4] Volker, J. M. "Counseling experience, moral judgment, awareness of consequences, and moral sensitivity in counseling prac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1984
- [5] W. J. Chung,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General Background and concern degree of human rights on Perceiving a situation as human righ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 12, No. 4. pp. 167-187, 2008
- [6] S. S. Hong,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Vol. 60, 2 No 4. pp. 197-230, 2019
DOI: <http://dx.doi.org/10.33446/KJLS.60.7>
- [7] Korea Federation of Women's Science & Technology Association, "Creating a safe laboratory free from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2015
- [8] Human Rights Center of Gwan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rvey on research environment", 2019; Postech Graduation Student Association, "Survey on research environment of Graduate School Students", 2020; Kaist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Survey on research environment", 2020
- [9] B. Y. Lee, M. Jang, N. R. Kwak, "A Study on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of Graduate Students in Engineering University through In-depth Interview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 14, No. 1, pp. 55-81, 2021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1.3>
- [10] J. Y. Shin, D. H. Lee, S. Y. Lee, Y. S. Han, "A study on types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9, No. 2. pp.69-95, 2015
- [11] B. R. Kim, D. H. Lee, D. Y. Lee, D. H. Lee, "The Relationship of Trauma Event Experience on Psychological and PTSD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4, No. 1, 117-145, 2019
- [12] J. W. Song et al, "A Study on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Norm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pp.71, 2020
- [13]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5-396, 1983
DOI: <https://doi.org/10.2307/2136404>
- [14] J. H. Lee, C. M. Shin, Y. H. Ko, J. H. Lim, S. H. Joe, S. H. Kim, I. K. Jung, C. S. 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 20 no. 2. pp 127-134, 2012
- [15] Weiss, D. S., and C. R. Marmar.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New York: Guilford Press, pp 399-411, 1997
- [16] S. M. Yi, H. J. Eun,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8, No 3, 501-511, 1999
- [17]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117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18] M. H. Park, W. S. Choe, "Influence of human rights respect and stress of adolescents on their self-concept",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4, pp.109-133, 2017
- [19] H. Y. Kim,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Job Stress and Infant Rights Awar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7, No 6, pp. 499-519, 2016
DOI: <https://doi.org/10.22143/hss21.7.5.30>
- [20] M. S. Yoon, S. H. Kim, A. R. Park, "The Relationship of Client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ental Health Social Work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3, No. 2, pp. 253-282, 2015
- [21] Williams, T. Trauma in the workplace. In: Wilson, J.

P. and Raphael, B.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and Syndromes", Plenum Press, New York, pp. 925-934. 1993.

- [22] Stephens, C., & Long, N.,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07-424. 2000
[https://doi.org/10.1002/\(SICI\)1099-1379\(200006\)21:4%3C407::AID-JOB17%3E3.0.CO;2-N](https://doi.org/10.1002/(SICI)1099-1379(200006)21:4%3C407::AID-JOB17%3E3.0.CO;2-N)
- [23] Paton, D., Violanti, J. M., Karena, B., & Gehrke, G. "Traumatic Stress in Police Officers: A Career Length Assessment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v33, n4, p761 - 765, 2010
 DOI: <https://doi.org/10.1108/13639511011085114>
- [24] O. J. Lee,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 Experiences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pp. 22-23, 2010
- [25] B. Y. BAE, Amos 21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Cheongram. p.673. 2014. pp.412

장 미(Mi Jang)

[정회원]



- 2010년 8월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상담심리학 석사)
- 2014년 9월 ~ 2017년 11월 :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전임연구원
- 2019년 9월 ~ 2020년 9월 : POSTECH 상담센터 객원상담원
- 2020년 10월 ~ 현재 : POSTECH 인권센터 전임연구원 근무

<관심분야>

심리검사, 심리상담, 인권프로그램

이 보 영(Bo-Yeong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상담심리 석사)
- 2020년 8월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수료)
- 2017년 8월 ~ 2020년 8월 : POSTECH 상담센터 전임상담원
- 2020년 9월 ~ 현재 : POSTECH 인권센터 전임연구원 근무

<관심분야>

인권 침해 및 차별, 성희롱·성폭력 상담

김 은 영(Eun-Young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조지 워싱턴대학교 임상심리학(심리학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 교육전담 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

<관심분야>

학교폭력, 정신화, 정신역동치료, 조현병, 인지재활